

대한민국과 글로벌펀드

현명한 투자

2000년에는 에이즈, 결핵과 말라리아 확산의 중단이 불가능하게 보였었다. 다수의 국가에서 에이즈는 전 세대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고아가 양산되며 공동체가 무너졌다. 말라리아는 모기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거나 생명을 구할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는 영유아·어린이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핵은 수천년 동안 불공정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세계는 이들 질병 퇴치를 위해 다시 싸웠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그리고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전염병 종식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전 세계 자원을 모은, 글로벌펀드(Global Fund) 결성에 동참했다.



2,700
만 명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으로부터 목숨을
구함



500
만 명

결핵 검사와
치료를 받음



1,750
만 명

HIV
항레트로바이러스를
치료함



1억 9,700
만 개

모기장이 어린이와
가족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포됨

구명자수는 2002년 이후 누적 통계임. 다른 수치들은 글로벌 펀드가 투자한 국가에서 2017년에 달성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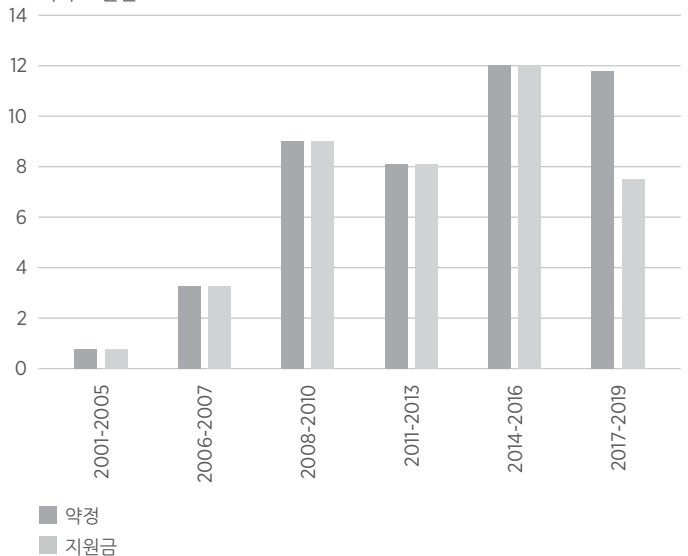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꾸다

근 20년간 대한민국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보건프로그램에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2,700 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국은 1,170만 달러를 글로벌펀드의 5차(2017-2019) 지원약정금으로 약속했고 2004년 이후부터 총 4,06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은 글로벌펀드에 필수약품을 6번째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이며 진단테스트 공급은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은 2억 8,600만 달러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83%인 2억 3,800만 달러(83%)가 진단 시약이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펀드 기여금은 항공권연대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한국은 개발 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기금을 운용하는 몇 안 되는 G20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기금 지원과 혁신 외에도 2018년 5월부터 글로벌펀드 이사회에 합류하기 시작하여 추가공여국(Additional Public Donors)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차트 데이터

미화로 환산



한국은 2019년 100만 달러를 추가 약속하여 2017-2019기간 동안 총 원금은 1,270만 달러가 될 것이다.

파트너십 중점우선 분야

국제보건에서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에 따라 보편적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글로벌펀드와 함께 한다.

건강보장을 위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 (Resilient and Sustainable Systems for Health): 견고한 보건의료체계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글로벌펀드는 보건의료체계강화에 매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다자기구들 중 보건의료체계강화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글로벌펀드는 UHC2030의 회원으로, 이 플랫폼의 보건의료체계강화와 보편적건강보장을 위한 정치적 공약을 이끌어내고 실천하도록 주장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병원균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아 전염병은 어디에서나 위협이 되므로 모든 곳이 위험하다. 글로벌펀드는 강력한 감시, 진단 및 비상 대응 능력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약제내성균과 같은 주요위험요인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국제보건안보에 크게 기여한다. 글로벌펀드 투자의 약 27% 는 보다 강력한 보건의료체계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여성과 여아(Women and Girls): 성 불평등, 차별, 폭력, 교육기회의 접근 제한 및 맞춤형 서비스부족은 여성과 여아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을 저해하여 HIV, 결핵 및 말라리아 신규감염을 유발한다. 글로벌펀드는 질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의 여성 청소년과 젊은이의 HIV 발병을 감소를 위해 포괄적인 성교육과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므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에 5배 이상 투자를 늘렸다.

약제내성말라리아 (Drug-Resistant Malaria): 전세계 말라리아 사망자수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거의 50% 감소했다. 그러나, 수년간 성과가 있는 후 말라리아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살충제 내성이 아프리카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약제내성 말라리아가 메콩강 유역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2013년에 시작된 지역아르테미시닌내성이니셔티브(Regional Artemisinin-Resistance Initiative, RAI)를 포함하여 전세계 말라리아 지원금의 약 60%를 지원한다. RAI는 살충제 처리 모기장, 신속진단테스트 및 효과가 보증된 약품등, 대메콩지역을 위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배포하여 말라리아 사망률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다제내성결핵(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MDR-TB): 결핵은 전염병 중 세계 최고의 사망 원인이다. MDR-TB는 현재 전 세계 모든 항생제 내성 사망의 약 1/3을 차지한다. 글로벌펀드는 중 저소득 국가에서 MDR-TB 대응을 위한 주된 국제기금이다. 글로벌펀드는 기존 보조금의 재편성을 통해 지난 6년간 MDR-TB지원을 3배 이상 늘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글로벌펀드는 2010년 이래로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억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원금은 2018년 6월, 자원활용과 지원금의 효과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로 마감되었다. 글로벌펀드는 북한에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펀드 / Quirm Ryan Mattingly

RAI Initiative 캄보디아. 타이 소키아(Tai Sokhea)는 고무 농장에서 일하는 말라리아동진료요원이다.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약30km 떨어져 있다. 그는 모기장, 말라리아 검사 및 치료, 콘돔, 설사 치료 키트 및 구충제 등의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염병 퇴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2030년까지 HIV, 결핵 및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는 가능한 목표지만 아직까지는 목표달성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수년 간의 괄목할 만한 성과 이후에 새로운 위협이 우리를 과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직면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향후 3년 간의 글로벌펀드 기금 목표액은 최소 미화 140억 달러 이상이다. 이 기금은 1,600만명의 생명을 구하고 2023년까지 HIV, TB 및 말라리아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보다 강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2030년까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글로벌펀드는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전염 종식을 위해 고안된 국제적파트너십이다. 국제기구인 글로벌펀드는 100여개국에서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4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투자한다. 정부, 시민사회, 기술적 기관, 민간부문 그리고 질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장벽에 도전하고 혁신을 수용하고 있다.

2019년 8월
theglobalfund.org